나는 이런 문제를 풀거야 (abstract)

: GPT-2로 비지도 학습형 모델로 생성형 언어모델을 보여줌. zero-shot task도 덧붙여 설명.

사실 이 문제는 이런 동기에서 연구가 시작된건데 (introduction)

: 여전히 많은 방법들이 지도학습을 필요로 함. 지도 데이터가 최소화된다면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.

관련해서 이런저런 접근들이 있었지 (related works)

: 사전 학습이 생성의 문장 생성에 있어서 도움이 됨을 알아냄.

난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보려고 하는데 (method)

: Transformer를 기본 모델이며 GPT-1의 구조를 대부분 따름. 디테일의 차이

정말 이게 잘 먹히는지 실험도 해봤어 (experiment)

: parameter에 차이를 두어 다양한 언어 모델 테스트를 실험함

이를 통해 이런 사실도 알아냈지만 한계점도 있지 (discussion)

: 요약에 있어서 기본적인 성능. 번역의 한계. BERT에서 말한 단방향 표현의 비효율성.

마지막으로 귀찮은 너를 위해 요약 (conclusion)

: 모델이 zero-shot으로 다양한 과제에서 잘 수행. 지도없이 크고 다양한 말뭉치로부터 학습하면 많은 문제를 잘 수행할 가능성을 제시함.